

제 3 절 국제협력

한때 IMF의 한파로 인해 주춤거렸던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이 CDMA 통신장비의 수출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 정보통신산업이 21C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볼 때, 정보통신부문의 이와 같은 빠른 국제경쟁력의 회복과 해외진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촉진

가. 1999년 수출입 동향('99. 1~9)

통관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올해 9월까지 수출현황을 보면 수출은 1,013억불로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41억불로 225%가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7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V-3-101〉 1999 1 ~ 9월의 수출입 실적 (단위 : 통관기준, 억불, %)

구 분	99 1~6	99 7월	99 8월	99 9월	99 1~9월
수 출	661(-15)	118(18.0)	114(17.3)	120(11.8)	1,013(38)
수 입	543(15.0)	97(37.7)	99(38.5)	101(40.0)	841(22.5)
무역수지	118	21	15	19	172

※ 산업자원부

이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15%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3/4분기 중에는 큰 증가세를 보여 9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38%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수입증가세 또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전자,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증가세가 크고 섬유, 철강 등은 수입규제 등 외부요인에 의해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증가율이나 금액 면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효자품목으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가전기기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입 통계를 본다면 정보통신부문의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에 대

〈표 V-3-102〉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99.1.1~9.20) (단위 %)

반 도 체	자 동 차	산업용전자	석유화학	섬 유	철 강
135	222	655	-24	-06	-184

한 기여도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99년 8월말까지 우리나라 전체수출이 893억불로서 전년대비 28% 증가했는데 비해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32.88%나 늘어난 251.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4.64%가

증가한 165.3억불로서 무역수지는 86.4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무역흑자의 50%를 넘는 액수로서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3-103〉 정보통신수출입실적('99.1.1~8.31) (단위 백만불, %)

구 분	전 체 산 업		정보통신(반도체제외)		정보통신(반도체포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수 출	89,313	2.85	13,078	57.99	25,168	32.88
수 입	73,923	20.39	6,131	64.02	16,525	44.64
무역수지	15,391	-39.50	6,947	53.02	8,643	14.99

〈표 V-3-104〉 '99년 1~8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98.1~8	'99.1~8	증감율	'98.1~8	'99.1~8	증감율	'98.1~8	'99.1~8
통 신 기 기	2,067	3,660	77.04	910	1,489	63.63	1,158	2,171
정 보 기 기	2,968	4,317	45.44	892	1,818	103.64	2,076	2,499
방 송 기 기	120	186	55.70	91	35	-61.04	29	151
일 반 부 품	3,118	4,905	57.30	1,727	2,600	50.57	1,392	2,306
반 도 체	10,663	12,090	13.39	7,687	10,394	35.22	2,976	1,696
패 키 지S/W	5	9	80.00	119	190	59.66	-114	-181
합계(반도체제외)	8,278	13,077	57.97	3,739	6,131	63.99	4,540	6,946
합계(반도체포함)	18,941	25,168	32.87	11,425	16,525	44.63	7,516	8,643

※ 자료 관세청, ETRI

세부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의 경우 팩시밀리, 휴대폰, 교환기 등이 좋은 실적을 보인데 비해 유선전화기는 95.4%가 감소하였다 정보기기의 경우 PC, 프린터, 모니터, ODD 등이 큰 증가세를 보인 반면

HDD는 21%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방송기기의 경우 위성방송수신기, CATV 기기 등이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부품의 경우 반도체, PCB, 일반전자부품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입의 경우 교환기, 전송장비 등 망장비 수입증가율이 200% 이상이며,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폐지된 휴대폰의 경우 전년대비 408%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무선호출기는 전년대비 33%의 수입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나. CDMA의 해외진출 지원

CDMA 방식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CDMA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무선에 의한 가입자회선구축방식인 WLL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99년 6월 현재 CDMA 기술에 의한 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하였거나, 시범제공중인 나라는 모두 4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미주
국가수	13	6	8	14

세계 최초의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CDMA를 전략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와 CDMA 시스템의 수출실적 또한 크게 늘고 있다.

〈표 V-3-105〉

CDMA 수출현황

(단위 천불)

구분	'97	'98	'99 상반기	합계
시스템	18,299	16,363	57,628	92,290
단말기	243,622	646,031	854,300	1,743,953
합계	261,921	662,394	911,928	1,836,243

CDMA 시스템의 수출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의 주력시장인 개도국에서는 발주처에게 장비수출업체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하는가가 수주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부는 CDMA 시스템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 및 수출보험 지원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였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도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문의 연불자금을 제공하고, 지원조건도 완화하는 통신기기 해외진출 지원대책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수출보험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주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가 진행되어, 99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국제회의 개최

99년도에 중국, 베트남 등 유망국가와 정보통신 장관회의 및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국 주요인사들에게 국내기업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중국, 베트남에서 아국 CDMA에 대해 문호를 개방키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어내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CDMA 기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서울에서 CDMA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초고속 멀티미디어 무선통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라. 한·중간 CDMA 협력사업 추진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중국의 CDMA 및 IMT-2000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통신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정보화·CDMA 등의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CDMA 세미나 과정을 개설하여 10명의 중국 기술진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차세대 통신지도자를 초청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석·박사급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V-3-106〉

한·중 세부분야별 연구협력분야

공동연구 분야	한국	중국	비 고
망설계 및 운영	5명	20명	한국 SK텔레콤,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 중국 연합통신
시 스템 (기지국, 교환기)	8명	32명	한국 ETRI, 삼성, LG, 현대 중국 한국업체와 합작기업 또는 정부지정기업
단 말 기	5명	20명	한국 삼성, LG, 현대 중국 한국업체와 합작기업 또는 정부지정기업
표 준 화	2명	8명	한국 ETRI, 한국통신 중국 국책연구소 중심
IMT-2000	5명	20명	한국 ETRI 중국 CATT
계	25명	100명	

〈표 V-3-107〉

한·중간 인력교류사업 주요내용

협력사업분야	인 력 교 류 규 모	비 고
망설계 및 운영	6개월에 30명(연 60명)	CDMA 사업자
시스템(기지국, 교환기)	6개월 3개사에서 각 5명(연 30명)	삼성, LG, 현대, ETRI
단 말 기	6개월 5개사에서 각 5명(연 50명)	삼성, LG, 현대, 팬택, 텔슨
표 준 화	6개월 2개기관 각 2명(연 8명)	ETRI
IMT-2000	6개월 ETRI 5명(연 10명)	ETRI, 한국통신
매니지먼트	6개월에 20명(연 40명)	CDMA 사업자

또한, 중국과의 장기적인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호혜적인 기술교류나 연구협력사업을 통해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간 인력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중간 협력사업은 현재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술협력사업과 기술인력 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교류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간 공동연구센터는 이동통신 5대 분야에 걸쳐 총 100여명의 연구인력이 참가하는 형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중간 인력교류사업은 시스템, 단말기, 표준화 등 6개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연수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 99년 6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이래 실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마. 유망품목 수출활성화 기반 강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그동안 수입대체효과가 큰 분야의 상용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TDx 전자교환기 및 DRAM 반도체 개발,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아직 기술료의 지출이 많고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기술제품을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정보통신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8년 9월에는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CDMA 장비, IMT-2000 단말기 등 17개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다. 그리고 수출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업체들의 수출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88건을 해소·지원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정보통신산업 수출금융지원협의회체를 구성·운영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 전자자교환기 등 2개 사업에 4,200만달러의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촉진 정책에 힘입어 1998년도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당초 목표인 298억달러를 초과한 305억달러를 달성하여 12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이룩하였다.

1999년에는 유망품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기술개발, R&D네트워크 구축, 기술
 윌 시장정보 제공, 국내시장 확대 등 정보통신기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

정보통신 기반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비 회수에도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다 따라서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장기저리차관의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최장 10년의 상환기간에 상업금리를 적용받는 연불금융보다 훨씬 유리한
 정부간 장기차관인 EDCF 자금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많다 그러나 EDCF 차관은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능한 많은 자금을 정보통신부문에 배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비교우위에 대해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련 부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점에 관한한 매
 우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으며, 향후에도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EDCF 기금은 '87년 150억원을 정부예산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이래 총 1조3,070억원이 조성되어 재
 정부의 감독하에 수출입은행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후에는
 개도국에 자국상품 구매와 직접 연계한 공여는 제한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 통신장비 업체들의 대외진출
 에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EDCF 기금중에 통신분야에 제공된 총액은 아래와 같다

◦ 기금지원 승인실적 ('87~'98 12)

(단위 억원, %)

건 설	통 신	에 너 지	보 건	상하수도	기 타	계
3,167	2,551	1,676	793	772	1,844	10,803
293	236	155	73	71	171	100%

◦ '99년도 통신규승인 규모 197 1백만불(2,365억원) 중 4개사업 66 1백만불을 정보통신분야에 배정
 (33.5% 점유)

건 설	통 신	보 건	합 계
150	661	1160	1971
76	335	589	100%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비하면 적지않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대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EDCF 지원금액은 필요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대규모프로젝트 등 해외진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와 기업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

부 등 정부부처의 통신부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지는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EDCF 자금배정에서 통신부문에 더욱 많은 비율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2.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강화

가.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정부는 우리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간 우호협력관계도 증진하기 위해 양자간 통신협력위원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인사의 교환방문, 민·관 사절단 파견도 강화하고 있다 아래는 99년중에 개최되었거나 개최예정인 정부간 대외협력활동의 요약이다 우리기업들이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대상국가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 중 국

- 6월 장관회담에 이어 8월 북경 UPU 총회에서 한·중 통신장관회담 및 협력회의 개최
 - 8월 소프트웨어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단 방중실시
-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CDMA 전문가 그룹 구성('99 9)
 - 차세대 중국통신지도자 초청교육 사업의 실시
 - '99년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8명 선발
 - 각과정 2회씩 총 24명 초청교육 예정
 - 소프트웨어 관계자 초청, 민간단체간 교류 등의 추진

2) 베트남

- 교환기, 케이블 합작공장, 통신망 확장사업 및 현대정보의 베트남 중앙은행 전산망사업 등이 진행
 - 현재 CDMA 사업과 2차 통신망확장사업 참여가 추진되고 있음
- 우리부 장관의 베트남 방문(6월)에 이어, 서울에서 양국 통신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3) 일본

- '99년 5월 동경에서 정통부와 우정성간 제9차 협력위 개최
 - 전자상거래 환경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HDTV 등 기술개발협력 등을 논의

- 10월 동경에서 양국장관회담을 개최하고 IMT-2000과 2002년 월드컵관련 협력 등을 추진
 - 소프트웨어 분야 정통부와 일본 통산성과 공식채널 구축합의에 따른 후속사업 발굴 추진

4) 루마니아

- '99년 5월 루마니아에서 5차 통신협력위를 개최하였으며, 8월 북경 UPU 총회기간중 양국 장관회담 개최
- EDCF 추가제공 및 루마니아 기술자 초청연수를 추진

5) 칠레

-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문에서도 상호 시장개방 및 투자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6) 이란

- 이란측으로부터 통신협력위 개최 제의를 받았으며, 99년말 또는 2000년 개최를 위해 시기, 장소 등의 실무협의를 진행되고 있음

7) 영국

- '99년 11월 영국에서 제3차 한 영 통신협력위 개최 예정
 - 영국측 제안으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콘퍼런스도 개최 제안

8) 우크라이나

- UPU 북경총회 참가시 양국 장관회담 개최
 - EDCF 제공 등 양국 관심사항의 상호협력 추진

9) 남아공

- 99년 7월 남아공에서 통신협력 증진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 CDMA-WLL 사업 참여 등 논의

10) 러시아

- 9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의 Telecom '99에서 차관회담 개최
 - 한 러시아 정보통신 협력 위원회 구성 및 년1회 개최 합의
- 제1차 협력위원회를 99년 11월 서울개최하기로 합의

- 2000년 모스크바에서 양국 장관회담 개최 추진

11) 미국

- 99년 12월 미국 국무부, FCC, 상무부 (NTIA)와 정보통신분야 고위 실무자급 협력회의 개최 예정

나. 기타협력사업

1)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자금력과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며, 정보통신부는 98년부터 소요비용 중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9년도에는 5억원예산을 투입하여, 5개 전시회에 67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기업체당 600~700만원씩 부스임차비와 기본장치비를 무상지원하였다.

전 시 회 명	장 소	기 간	참가업체 비교
제1회 EXPO COMM 스페인 '99	마드리드	99 6 16-6 18	5개
COMM ASIA '99	싱가폴	99 6 22-6 25	19개
PCS '99	미국 뉴올리안즈	99 9 22-9 24	19개
제3회 EXPO COMM Brazil '99	상파울로	99 11 9-11 12	8개
PT/EXPO CHINA '99	중국 광저우	99 11 30-12 3	16개

99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3개 전시회의 경우, 참가업체의 반응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 실적과 최종 수출까지 이르는 일련의 시간이 흘러야 최종 성과를 알 수 있겠지만, 98년 사업에 참가한 업체들의 평가를 감안할 때, 정부에서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고려하여 2000년에는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지원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업체들이 원한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일부는 미개척시장에의 진출을 원하는 업체에게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 해외진출 전략국가 정보통신 인력 초청연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정부는 해외진출 전략국가와 잠재적 기술수요국인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술교류와 연구협력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998년 총 12개국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청연수사업을 확대하여 1999년에는 CDMA, WLL, TDx 등의 정보통신분야와 정보화분야의 정책 및 신기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과정, 정보화과정, CDMA 세미나과정 등의 3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국제적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과정 별로는 정보통신과정에서 ASEAN (10명), 베트남 (10명), 루마니아 (10명), 러시아·CIS (10명), 기타 (10명) 등 총 50명, 정보화과정에서 ASEAN 국가에서 10명, CDMA 세미나과정에 중국 기술진 10명 등 총 7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5천만원이다

이의 추진일정은 1999년 3월부터 9월까지 연수대상자 선정과 초충장 발송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연수를 실시한 후, 그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3)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CDB 구축

우리기업이 해외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해당기업이 수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회사들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투자검토와 진출 초기 단계에는 기초적인 자료마저 구하기 힘들고, 더욱 정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필요정보를 수집·제공하는 DB를 구축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에 99년 35억 원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8월경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DB 운영 초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점도 예상되지만 이용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질적 양적 고도화를 도모할 방침이며 미국의 우수 DB 제공회사를 Benchmarking하여 빠른 시일내 손색없는 정보제공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Homepage . www.itbkorea.com)

3. 정보통신부문의 외자유치 동향

가. '98년도 외자유치 실적

정보통신산업은 무역수지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98년 IMF 관리체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하였을 때도 굳건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이끌어 들인 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자체통계에 의하면 '98년 전체 외자유치액은 885억불로서, IMF 위기 이전인 '97년에 비해서도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정보통신분야는 20억불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전체 외자유치 금액의 22.8%를 차지하였는데 금

액면에서는 아남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의 해외매각에 힘입은 기기제조업 분야가 1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기간통신서비스산업에 외국인지분범위가 33%를 확대됨에 따라 98년 3/4분기 이후 한솔 PCS, LG Telecom 등에서 외자유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서 6억불의 외자유치실적을 올렸다

〈표 V-3-301〉 '98년도 분기별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신고기준, 천불)

구 분	1/1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정보통신기기	23,205	129,764	24,132	1,187,631	1,364,732
정보통신서비스	237	437	208,873	412,134	621,681
S/W	9,853	3,548	2,597	16,656	32,654
계	33,295	133,749	235,602	1,616,421	2,109,067

※ 자료 재정경제부, 정보통신진흥협회

〈표 V-3-302〉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변천 현황

구 분		유 선	무 선	별 정	부 가	
WTO 기본 통신협상	~1997년	동 일 인	10% (1%)	33%	0%	100%
		외 국 인	0%	33%	0%	100%
	1998년~ 2002년	동 일 인	10% (3%)	33%	100%	100%
		외 국 인	33% (20%)	33%	49%	100%
	2001년~	동 일 인	10% (3%)	33%	100%	100%
		외 국 인	49% (33%)	49%	100%	100%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998 9 17부터)	동 일 인	100% (7%)	100%	100%	100%	
	외 국 인	33% (33%)	33%	49%	100%	
199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999 7 1 부터)	동 일 인	100% (15%)	100%	100%	100%	
	외 국 인	49% (33%)	49%	49%	100%	

※ 주 1) WTO 양허안에서는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1999년부터 49%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1998년 9월 17일부터 49%까지 투자가 허용되었음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해 한국통신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7%로 제한 되어 왔으나 1999년 1월 29일 동 법개정으로 15%로 확대되었음

3) () 은 한국통신의 동일인 및 외국인 지분한도임

나.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

정보통신부는 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유선 100%, 무선 33%로 되어있는 통신사업자의 동일인지분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고, 외국이 최대주주도 99년부터 허용하였다. 한국통신은 외국인들이

투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기간통신사업자인데, 20%로 되어있던 외국인 지분 한도를 33%로 확대하였다 또한 당초 WTO에서 제출한 개방일정보다 앞당겨 '99년 7월 1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외국인도 국내 기간통신업자의 최대주주로서 통신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엄격히 규제되어 왔던 기간통신사업자의 M&A도 공정경쟁 질서유지와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의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외국인 투자 촉진은 물론 국내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정보통신 분야 국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표 V-3-303>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 동향

○ 분야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천불, %)

구 분	'98년	'99 1~3월	4~6월	7~8월	누계 (62~'99 8월)
정보통신기기	1,364,732 (67.6)	225,261 (34.1)	156,979 (70.6)	82,978 (81.4)	2,806,425 (63.6)
정보통신서비스	621,681 (30.8)	417,313 (63.2)	28,626 (12.9)	10,414 (10.2)	1,367,262 (31.0)
S/W	32,654 (1.60)	17,767 (2.69)	36,731 (16.5)	8,492 (8.30)	236,832 (5.40)
계	2,019,067 (100)	660,341 (100)	222,336 (100)	101,884 (100)	4,410,519 (100)

○ 분기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천불, %)

구 분	'99년 1/4분기	2/4분기	'99 7~8월	'99 1~8월
정보통신기기	225,261 (34.1)	156,979 (70.6)	82,978 (81.4)	465,218 (47.3)
정보통신서비스	417,313 (63.2)	28,626 (12.9)	10,414 (10.2)	456,353 (46.4)
S/W	17,767 (2.69)	36,731 (16.5)	8,492 (8.30)	62,990 (6.40)
계	660,341 (100)	222,336 (100)	101,884 (100)	984,561 (100)

○ 주요지역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천불, %)

구 분	'99년 1/4분기	2/4분기	'99 7~8	'99 1~8월
미 국	190,936 (28.9)	113,920 (51.2)	10,656 (10.5)	315,512 (32.0)
일 본	2,546 (0.39)	10,512 (4.73)	6,368 (6.30)	19,444 (2.00)
E U	429,094 (65.0)	53,939 (24.3)	50,341 (49.4)	533,374 (54.2)
기 타	37,747 (5.72)	43,965 (19.8)	34,519 (33.9)	116,231 (11.8)
계	660,341 (100)	222,336 (100)	101,884 (100)	984,561 (100)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전략적 제휴, 해외 DR 발행이 아직 진행중인데 이들이 결실을 맺으면 다시 정보통신서비스가 외자유치 주력부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9년 7월 1일부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가 종전 33%에서 49%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주식 매입등에 의한 외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제협력정책 방향

WTO의 정식출범과 함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향한 신국제 무역규범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지원 등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전시회참가지원, 인력 양성지원 등이 이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국 상품구매와 연계는 OECD 규약에 의해 금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차관 요청국은 해당지원자금 획득을 위해 우리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좋은 조건의 EDCF 자금의 공여는 여전히 매우 유용한 아국기업 진출지원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는 자동차나 건설 못지 않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종래유선뿐만 아니라 유 무선 복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21세기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기반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DMA도 통신망의 특성인 시장 선점효과와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신분야에 대한 EDCF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간 통신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종래 자금지원과 교육 훈련제공 위주에서 형식승인, 지분제한 완화 등 시장진입 장벽해소, 전자상거래와 무역 규범의 제정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인력교류 등을 통해 국가간 신뢰증진으로 불필요한 통상마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5.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의 능동적 대응

가. WTO 뉴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수립

1998년 5월의 제2차 WTO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UR에 이어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출

범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1998년 9월에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의 범위, 협상방식 및 진행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여 작업계획 권고안을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협상안건으로는 기존 협정의 이행점검,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정보기술제품의 관세인하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실 국, KISDI, ETRI, 한국전산원, 관련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뉴라운드협상 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을 위한 기본전략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나.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1996년 12월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정보통신분야 203개 품목의 무관세화를 목표로 정보기술관세협정 (ITA -I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 이 타결되었으며, 이를 확장하려는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ITA -II) 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14개 참가국은 1998년 2월까지 416개 추가 품목 리스트를 WTO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그 후 기술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중복되는 품목을 조정하고, 정보기술 비관련 제품은 제외하는 재분류 과정을 거치면서 416개 품목을 200여개 품목으로 조정하였다

<표 V-3-501>

정보기술협정 재조정 품목

구 분	ITA -I (203개 품목)	ITA -II (200여개 품목)
품 목 범 위	반도체제조장비, 반도체소자,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측정장 비, 기타	PCB 제조장비 및 재료, 축전기, LCD 제조장비, 동작기계, 가전제품, 배터리, 항행용 장비, 기타 (전선 변압기 저항 기 등)

※ 주 1) 1998년 6월까지 양자 협의와 품목분류체계 협의를 통해 416개 품목을 265개 품목으로 재분류함
2) 정보통신부 검토품목 60개 (통신기기 13, 정보 방송기기 6, 부품 35, 기타 6)

1998년 6월 의장제안 리스트로 182개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상품목에 대한 참가 국간 이해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시한이 7월말로 연장되었고, ITA -II 의 14개 품목군 중 가 전제품 (동남아 제안, 미 EU 반대), PCB 제조장비 (Quad제안, 말레이시아 · 대만 이스라엘 등 반 대), PCB 원료 (호주제안, 일 EU 캐나다 반대), 항행용 장비, 전지류가 주요 이슈품목군으로 분류되 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상품목 범위의 별도로 무관세 시점 (2002년 1월 1일) 과 민감품목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시한 (2005년까지) 은 대체적으로 합의되었다

1998년 12월까지 신규 ITA 대상품목 리스트 채택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대상품목 범위에 대한 참가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결렬되었다. 결렬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대상품목이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되어 정보기술 적합성에 대한 동남아국가와 EU의 대립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분야별 접근방식과 EU의 포괄적 접근방식의 입장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TV카메라 리튬이온전지 등 우리나라의 11개 민감품목(이행기간 연장품목)은 양자 다자 협상에서 긍정적 반응을 받았으며, 특히 정보통신부 민감품목(리튬이온전지 항행용 무선기기)은 제안국인 일본·노르웨이, 이스라엘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

다. 통신장비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

통신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은 각국이 통신기기에 대해 제각기 실시하고 있는 중복적 적합성 평가절차를 상호인정을 통해 단순화함으로써 기술장벽을 제거, 무역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수출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수입국이 단계적으로 상호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에 참가한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홍콩, 대만 등 8개국이 1999년 7월 1일부터 통신기기 MRA 시행에 참여하기로 하여 이에 의해 가능한 조기에 관련 기술규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이어 지정기관(전파연구소), 참여시기, 관련규정을 APEC에 통보하였다 또한 기존에 추진된 한·캐나다 MRA도 APEC MRA로 대체할 수 있도록 캐나다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 연례협약

1997년 11월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와 EU는 1998년 10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업체의 상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이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연례회의는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의 정기적 협의조항에 따른 것으로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상호이해, 양국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한국과 EU 정보통신업체의 상호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차 한·EU 통신장비조달 협정 연례협약은 1999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내장비업체의 대 EU시장 진출지원 및 양자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인정협정의 조기체결 및 EU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등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한·카 통신장비 조달협정 후속협약

1998년 7월,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한 카 통신장비 조달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제4차 통신협약에서 두 나라는 양허대상기관을 우리측의 한국통신과 캐나다측의 89개 연방정부기관으로 하고, 적용대상 품목은 연간 구매액이 13만SDR(약 2억원) 이상인 통신장비와 그 부속서비스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조달원칙과 조달절차, 이의신청절차는 WTO정부조달협정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캐나다 공식 방문기간인 1999년 7월 5일에 양국 외무부 장관간에 공식서명이 체결됨에 따라, 원산지규정 등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한·카 통신정책협의회,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및 한 카 통신장비조달협정 연례협의 등을 통해 상호이해증진 및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응

종래의 투자보장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투자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포괄적인 지역경제공동체를 향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세기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한·미, 한·일 양자투자협정을 위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참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여타 투자협정은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데 비해, 한 미, 한·일간에 추진되고 있는 양자투자협정은 성립 전 투자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이 모든 품목을 개방대상으로 하고 예외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취하는 점과 관련하여, 만일 정보통신분야가 예외 분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0% 대외개방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WTO GATS협정과 양자투자협정과 상호관계에 있어 WTO GATS의 최혜국대우원칙은 양자투자협정에 적용되어, 양자간의 시장개방합의가 자동으로 WTO 다른 회원국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에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이 투자협정의 다른 특징으로는 해당 국가와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에 대해 정부가 생산품의 수출의무 부과, 기술이전의 의무, 현지에서의 연구개발 요구, 일정 수준의 국산품 사용의무, 생산·수출·외환 획득량과 수입 및 판매의 연계 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위의 사항은 민간차원에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자율 적용해 나가야 하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 일 투자협정 초안에는 상호인정협정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APEC에서의 상호인정협정에 의해 상당부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익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6. 국제기구활동의 지속적 전개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활동 강화

우리나라는 1952년 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회원국이 된 이래 1989년 니스전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되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126개국의 지지를 얻어 이사국으로 재선된 바 있다

제15차 ITU 전권위원회('98 10, 미국)에 참가하여 아·태 중동지역에서 최다득표로 이사국으로 재선됨에 따라 이사국으로서 임기 4년 동안 ITU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 국제통신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ITU의 주요 정책 재정 인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동시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ITU가 정보통신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표준의 제정 등 권한을 단계적으로 정부간 회의에서 ITU 연구반으로 위임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체, 장비제조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의 연구반 활동 증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ITU 홍보 및 연구반 활동 참여를 권고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ITU 민간회원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연구반의 의장, 간사 등에 추가 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ITU 주간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전기통신 전시회 및 포럼인 '텔레콤 99'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진출 기반을 도모하였다. 이 포럼은 1999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대표의 기조연설과 다수의 국내 통신분야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가할 예정이다

나. 아·태 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주도적 참여

기존의 국제경제를 주도해 오던 대서양 경제가 쇠퇴하고 새로운 발전의 축으로서 태평양 시대의 도래가 가시화되는 등 전반적인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이 아·태 지역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아·태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제창하였다.

정부는 APEC의 정보통신분야 무역 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역내 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회선비용 연구와 역내 전자상거래, Y2K 문제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99년초에는 Y2K 긴급대책전문가회의 및 Y2K Week에 참여하여 Y2K 문제의 해결을 협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9월에 페루에서 개최되는 제20차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APEC 각료정상회의에도 참가하였다

다. OECD 정보통신분야 활동 전문화

OECD위원회 중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원회(ICCP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는 정보·컴퓨터·통신시스템 및 서비스기술의 개발과 응용, 국내 및 국제정책에 대한 경험 등을 회원국간에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관련정책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2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최근들어 정보통신분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ICCP의 활동에 대하여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OECD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의 OECD 정보통신정책연구반을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확대 재구성하여 OECD의 주요 현안인 규제개혁 심사, 통신정책과 융합, 정보사회,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기반 서비스, GIS 측정 및 분석,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체계 등의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1999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규제개혁 심사에 대비하여 1998년 네덜란드, 미국 등 타 국가의 심사결과와 질문서를 분석하는 등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할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심사, 자유화 이행, 다자간 투자협정, 암호 및 인증, 1999년도 통신 및 정보기술 전망 등의 OECD 간행물 작성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국내 전기통신부문의 발전상에 대한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라. 아 태 정보통신협의체(APT) 활동 강화

아 태 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는 UN 지역기구의 하나인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발족시킨 아 태지역 정부간 전기통신기구이다 이 기구는 아 태 지역내 경제 및 사회개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기통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며, 각국 전기통신기관간의 정책,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상호교류를 촉진 조정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종순씨가 재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PT에 정부 외에도 한국통신, 데이콤, SK 텔레콤, 대우통신, 삼성전자, LG 정보통신, 현대전자, 한화정보통신 등의 업체들이 협찬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99년에는 APT 20주년을 기념하여 7월 서울에서 APT, ITU와 공동으로 GMPCS워크샵을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아 태지역 회원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아 태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APT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1999년 11월에 개최될 제8차 총회에 대비하여 국내회원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개정안 및 APT 개혁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IMT-2000 등 표준화 공동연구를 위해 신설된 APT 전기통신표준화기구(ASTAP)에 국내연구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향후 우리나라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1998년에 19개국 6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던 아 태지역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을 확대하여 1999년 5월부터 11월까지 APT 회원국 정보통신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INTELSAT/INMARSAT 구조개편 참여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는 1964년 세계 상업통신 위성궤도의 우주부문 설계 개발 건설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편,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는 당초 국제해사위성기구(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로 발족되어 위성을 이용하여 해상에서의 조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선박간 또는 선박과 육지간의 통신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4년 12월 제10차 임시총회에서 국제이동위성기구로 개칭되었다 INTELSAT이 국제간의 고정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인데 비하여, INMARSAT은 국제간의 해상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44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대표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99년 8월 현재 INMARSAT은 이리듐(Iridium), 글로벌스타(Globalstar) 등 민간이동통신분야 경쟁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NMARSAT 주식회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감시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규모정부간기구(IMSO)로 분리하기 위한 INMARSAT 협약개정 비준작업 중이며, 1999년 4월 15일에는 INMARSAT 주식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INMARSAT 민영회사를 일단 출범시킨 바 있다

바. 국제 기술표준화 활동 및 전파 방송분야 국제협력 강화

정보통신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외 시장 및 기술 변화 등 세계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수요지향적 표준화와 국제적 접속 및 호환성 보장이 쉬운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IMT-2000 표준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IMT-2000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ITU의 추가 주파수 확보계획에 적극 대처하고, 전파규칙 개정, 위성방송 채널확보 등 국익과 직결된 의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마련하여 중국, 일본, 호주 등 APT 중심국가와 연대하는 등 APT의 WRC-2000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999년에는 전파연구소를 ITU-R 관련 연구전담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위탁연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ITU-R 활동계획을 수립, 기관별·분야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ITU-R 활동을 종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